

##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lt;15&gt;

## 춘추무장(春秋無將)



장차 배반할 생각만 했어도 용서하지 못한다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역사를 읽다 보면 정적(政敵)을 옮아매려고 하는데 마땅한 조목이 없어서 무리한 죄목을 가져다 뒤집어씌우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띈다. 그것 가운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건은 한무제(漢武帝) 때의 일이다. 한무제는 자기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조리 처벌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 어떤 무리한 조령(詔令)이 새로 반포되더라도 이를 비판하면 처벌이 하도 심하니 겉으로는 대놓고 반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자(識者)라면 마음 속으로 조작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으니 그래서 간혹 새로 반포된 무리한 조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겉으로 직접 비판할 수는 없지만 입을 빼죽 내미는 경우가 있다. 새 조령에 관하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뜯칠 것이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이를 처벌하는 '반순복비(反唇腹誹)'라는 죄명을 만들어 냈다. 즉 반순(反唇)이란 입을 빼죽 내민다는 뜻이고 복비(腹誹)는 뱃속으로 비방한다는 말이나 입을 빼죽 내미는 것만으로도 뱃속으로 조령을 비방하였다고 판단하고 처벌한 것이다.

이와 똑같은 죄명은 아니지만 권력을 친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속으로라도 배반할 생각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골라내어 처벌하고 싶어 하였다. 송대(宋代) 진종(眞宗) 시기에 명재상 구준(寇準)을 쫓아낸 정위(丁謂)라는 간신(姦臣)의 이야기이다. 구준은 요(遼)와의 교섭을 잘 이끈 명재상이었고, 곧은 사람이었지만 정위는 역사에 아첨꾼 간신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다.

구준이 재상이었을 때에 정위는 그 바로 밑의 참지정사(參知政事)까지 올라갔다. 첫 대면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재상인 구준의 국에 머리카락이 들어간 것을 발견하고 직접 그 머리카락을 건져 주었다. 정위는 구준에게 한껏 잘 보이려고 아첨을 한 것이었지만 구준이 보기에는 참지정사까지 오른 사람의 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참지정사가 되어서 직접 머리카락을 국에서 건지는가?' 하였다.

이 사건으로 정위는 무안을 당한 터였고, 그 후로 기회만 있으면 재상 구준을 엎을 기회를 찾았고, 드디어 정치적인 장난을 통하여 정위는 재상이 되고 구준을 파직하게 되었다. 재상이 된 정위는 불같은 호령으로 구준을 엎어버리고 야단치면서 이를 담당한 송수(宋綏, 991~1041)에게 명령하여 구준을 펜재(貶責)하는 말을 기초하게 하였는데, 송수가 조사하여도 구준의 죄(罪)가 무엇인지 알 수 없자, 정위에게 구준의 죄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니 정위가 말하였다.

“춘추(春秋)에는 무장(無將)이라 하였고 한법(漢法)에는 부도(不道)라고 하였으니 모두가 증명하는 일이다.”

무장이란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나오는 말로 장공(莊公) 32년조에 ‘군친무장(君親無將) 장이주언(將而誅焉)’이라는 말이 있다. 즉 장례에 ‘군주나 부모에 대하여서는 배반하겠다고 생각만 하고 아직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용서받지 못하고 주살한다.’

말이다. 정위가 구준에게 죄를 주면서 구준의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벌을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제서(制書)를 기초하게 한 것이다.

장차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란 증명할 수 없는 것인데, 권력을 가진 정위가 구준을 처벌하고 싶은데 마땅한 조목이 없자 양뚱하게도 춘추(春秋)라는 경전에 실린 말을 왜곡하고 이용하여 처벌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물론 이 말을 들은 송수는 그가 하는 말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는 수 없이 지시한 대로 제서(制書)를 만들어서 구준을 내쫓았다.

이러한 사건이 지나고 후에 진종(眞宗)이 죽고 인종(仁宗)이 등장하면서 오래도록 권좌에 있던 정위(丁謂)가 쫓겨나게 되었다. 이때에 공교롭게도 정위를 내쫓는 제서를 쓰게 된 사람은 또 송수였다. 송수는 정위가 구준을 내쫓을 때에 사용하였던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정위에게 바로 정위가 전에 스스로 한 말을 가져다가 그를 비평하는 제서를 썼다. “무장(無將)을 경계한 것은 경전(經典)에 아주 분명하고 부도(不道)의 허물은 일상적인 형법(刑法)에서도 구하지 못한다.” 정위는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걸린 셈이다. 평론하는 사람들은 유쾌하게 생각하였다.

사실 정치에 참여하였던 사람이 여러 역학관계(力學關係) 속에서 부상(浮上)하기도 하고 나락(奈落)으로 떨어지는 수도 있다. 그것을 각오하지 않고 정치에 몸을 담으려 한다면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인 것이다. 이러한 각오를 할 때 다만 백성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비록 정치적 몰리를 맞게 되어도 백성들로부터 그리움을 받게 된다면 성공한 정치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구준은 정위에게 쫓겨 날 때에 백성들은 노래하였다. “천하가 편안함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눈 속에 있는 대못을 뽑아 버려야 하고, 천하에 호(好)시절이 있기를 바라면 구로(寇老)를 불러들이는 것 만한 것이다.” 대못이라 함은 정위를 말하는 것인데, 정위(丁謂)의 정(釣)은 정(釣)과 같은 발음이기 때문이다. 구로(寇老)는 겉으로 들리는 말은 침략자라는 말이어서 거란인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구준(寇準) 영감을 뜻하는 것이다. 결국 정위를 뽑아버리고 구준을 모셔 와야 한다는 말인 셈이다. 그러한 점에서 구준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비록 정치적으로 실각하였지만 성공적인 정치인이었다.

선거가 가까워지니 온갖 음모가 판을 친다. 음모는 음모를 낳고, 작은 모략은 더 큰 모략을 불러 오는 것이 정치세계의 일 같은데, 또 얼마나 맘도 되지 않는 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들이 난무할까 걱정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고두고 백성들이 기억하고 칭송받을 정치인이 되는 것이 그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겠는가?

일시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으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이란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다.

## 남원 동학기행에서 만난 ‘급사중공파 권철(權徹 29세)과 권명규(權命奎 30세)



경인지부 권철자 명규

산신지위



동학기행으로 떠난 남원(南原), 수운 최제우의 ‘은적암 터’에서 발견한 〈산신지위(山神之位)〉 바위 옆에 ‘경인 지부 권철자 명규’의 의미를 새겨본다.

교룡산성(妙龍山城)은 조선시대에도 산성이 있었고 그 위에 선국사(善國寺)라는 오래된 절, 신라시대 창건이나 사실상 조선중기에게 재건한 작은 사찰이 있고, 그 뒤는 조선 군대의 주둔지로서 지금 발굴 중이다. 300미터 산길을 올라가면 자그만 평지가 나오고 그 곳이 ‘은적암’터라는 것이다.

또 뒷편 바위에는 ‘산신지위(山神之位)’ 표식과 또 옆에는 ‘경인 지부 권철자 명규(庚寅知府 權徹子命奎)’라는 각자(刻字)가 있었다. 뒷편에 넓은 곳은 ‘장류보관소’인데 군대 부식창고이다. 앞면은 남원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전하의 명당이다. 여기는 수운선생이 5~6개 월 계시면서 동학이라는 명칭을 정립하고 동학 활동 계획을 짜심한 의미 있는 곳이다. 더구나 ‘백용성(白龍城 1864~1940. 민족대표 33인) 스님 출가지’라고 ‘정토회(法輪)’가 세운 풋말이 있다. 기실 백용성은 14세 때 여기서 출가했다고 하지만 곧 환속하고 정식 출가하는 ‘해인사’이다.

규모는 건평 10여 평이고 방은 한 둘이었다고 한다. 은적암(隱蹟庵, 원명 덕밀암 德密庵)은 수운선생이 명명하고 은적암(隱寂庵)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고쳐서 부른다고 한다. 은적암은 수운선생이 ‘검결(劍)’을 쓰고 동학의 활동 방향을 터 닦은 곳이다. 같이 간 천도교인도 낙서 한 것이라고 하고 동학관련 학토사학에게도 물어보니 무의미 하다는 통명스러운 대답이여

구체로는 건평 10여 평이고 방은 한 둘이었다고 한다. 은적암(隱蹟庵, 원명 덕밀암 德密庵)은 수운선생이 명명하고 은적암(隱寂庵)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고쳐서 부른다고 한다. 은적암은 수운선생이 ‘검결(劍)’을 쓰고 동학의 활동 방향을 터 닦은 곳이다. 같이 간 천도교인도 낙서 한 것이라고 하고 동학관련 학토사학에게도 물어보니 무의미 하다는 통명스러운 대답이여

## 파종회장협의회에 시중공파종회장 가입

10월 30일 저녁 7시 안동시 복주3길(옥동) ‘민속갈비’식당에서 최근 시중공파종회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된 권중근씨가 이날 파종회장협의회에 가입하였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회장 및 회원들을 보면

권계동, 권인탁 파종회장협의회 두 고문을 비롯하여 권숙동 안동종친회장, 권오의 대종회 사무부총장, 권영건 부호장공파종회장, 권기

호 복야공파종회장, 권기수 별장공파종회장, 권기원 파종회장협의회 사무국장, 권기욱 복야공파 사무국장 등 9명이고 권오수 동정공파 종회장과 권영택 정조공파종회장 등 2명은 개인별로 참석을 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다음 모임에 회장들이 만나면 정확한 회 명칭과 회칙제정, 회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확정 짓기로 했다.

이날 관계동 협의회 고문은 인사말에서 “권기호 복야공파종회장이 파종회장협의회장에 선출되어 축하하는 뜻에서 오늘 내가 자녀를 사겠다”고 해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편 안동권씨 15개 파(派) 가운데 안동지역에 거주하는 파종회장은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권오철 기자〉

## 謹賀新年

존경하는 안동권씨 15개 파종회회장단회장님, 전국 60여개 지역종친협의회 회장님, 전국 32개 전국청장년 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전국 각지의 100만 족친님과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족친 여러분! 2020庚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동권씨 전국청장년협의회 회장 권갑수  
사무국장 권영홍



회장 권 갑 수

지역	회장	사무국장									
강릉	권태이	권오범	봉화	권영만	권오서	영덕	권영구	권영태	진천	권정욱	권순성
경주	권택규	권순호	부산	권갑수	권영홍	영주	권오현	권용일	창원	권영민	권중수
광주	권석주	권영덕	산청	권병국	권희성	영천	권창섭	권병일	청송	권영호	겸임
구미	권태훈	권용범	상주	권만집	권오상	예천	권세은	권일수	청주	권광택	권혁만
능곡	권오건	권순익	서울	권정호	권영일	울산	권명달	권응복	합천	권영욱	권덕현
담양	권공식	권창만	시흥	권오정	권기형	원주	권창구	권혁남	일본	권영철	
대구	권기현	권영훈	안강	권택전	권내언	의성	권영길	권미란			
대전	권영인	권선교	안동	권대능	권중익	음성	권병택	권오문			
문경	권익	권칠욱	안양	권순보	권인상	제천	권병기	권형기			

安東權氏 全國青壯年會長協議會 會長 權 갑 수